

룻기

룻기는 역사서 중 하나이며 그 저자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룻기는 타락하고 부패한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에는 룻이 비록 이방 모압 여인이지만 여호와께 향한 믿음을 지킴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오르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다윗까지의 계보를 소개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노트

1. 룻의 시부모는 어디 출신이며 그들의 이름은?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 (룻 1:1-2)
2. 룻의 시부모가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 이사 간 곳은? 모압 지방 (룻 1:2) ⇨ 모압 지방은 사해의 동남부에 위치해 있고 베들레헴은 사해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압 지역은 사해 동남쪽 끝에서부터 약 30 mile 정도 북쪽에 있는 아르논 강(삿 11:18)까지입니다.
3. 나오미의 두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 (룻 1:4)
4. 룻 1:11-13 ⇨ 나오미는 과부 된 며느리들에게 '기업 무를 자(룻 2:20 등등)'의 전통에 의거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아들도 없고, 자신도 과부이며, 나이 들어 이제 아들을 낳을 리도 없고, 또 설혹 낳는다 해도 어느 세월에 기다리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업 무를 자의 전통이란 형제가 자손 없이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대를 잇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이 외에도 친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살인자를 찾아 피의 복수를 하는 일, 친족이 채무로 인해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다시 찾아주는 일, 친족이 증으로 팔렸을 때 속량해 주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이자 책임은 친 형제가 없을 때에는 촌수로 따져서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룻 3:12).
5. 과부 된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역시 과부 된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였을 때 마다하고 따라온 며느리의 이름은? 룻 (룻 1:14)
6.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동네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를 부를 때 나오미는 자기를 어떻게 불러달라고 했나? 마라 (룻 1:19-20) ⇨ 모압으로 간지 10 년만에(룻 1:4)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돌아온 나오미 때문에 동네가 떠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고통과 괴로움을 뜻합니다.
7. 룻이 이삭을 주운 곳은 누구의 밭이었나? 보아스 (룻 2:3) ⇨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남겼고 떨어진 이삭도 다 줍지 않았습니다(레 19:9-10)
8. 룻 2:21-22 ⇨ 8 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는데 21 절에 룻은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받아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고 대답하니 앞뒤가 잘 안 맞고 좀 이상하네요. KJV 에 maidens, young men, maidens 로 되어 있고 NIV 에는 girls, workers, girls 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주석을 보니 21 절에 소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남성형이지만 여성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있는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룻이 굳이 그렇게 헛갈릴 말로 나오미에게 대답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리 저리 읽어보며 생각하는데 9 절에 열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로 되어 있는데 2 번 나오는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당시의 추수는 남자들이 곡식을 베며 앞에서 나아가면 여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고 곡식을 단으로 묶어서 세우고 따라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9 절에 처음 나오는 '그들'은 곡식을 베는 소년들이고 두 번째 나오는 '그들'은 뒤를 따르는 소녀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NIV 를 보니 'Watch the field where the men are harvesting, and follow along after the girls'로 되어 있으니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소녀들 중에는 앞에서 가야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고 그러자니 소년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소녀들 틈에서 같이 움직이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요?

9. 룯이 보아스에게 기업 무를 자라고 했을 때(룯 3:9) 보아스의 대답은? 기업 무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룯 3:12)
10. 보아스보다 기업을 무를 순위가 위인 사람이 기업 무르기를 사양한 이유는?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룯 4:6) ⇨ 땅만 사는 것으로 알고 4 절에서는 무르겠다고 했던 이 사람은 기업을 무르는 조건으로 룯을 거두어야 한다는(룯 4:5) 말을 듣고 못하겠다고 답합니다. 기업을 무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를 잇기 위함인데 룯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나면 룯의 죽은 남편의 족보로 들어가고 그 땅이 그 아들의 소유로 되기 때문에 주판이 잘 튀겨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11. 옛적 이스라엘의 풍습으로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한 증명으로 행했던 일은? 신을 벗어서 주는 것 (룯 4:7)
12. 룯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들의 이름은? 오벳 (룯 4:17)
13. 룯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오벳과 다윗은 어떤 관계인가?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룯 4:17)